朝鮮日報
七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時評

月南社會葬儀

× 月南先生 社會葬儀를 擧行함에 臨하야 萬感이 가슴속에 옹긋인다 先生은 人道의 勇士이엇고 正義의 使徒이엇스며 民族과 同胞를 爲하야 一生을 盡瘁하신바는 萬人이 共認하는바이오 그의 高潔하신 人格과 圓美하신 德容에는 種族的 및 階級的의 界線을 超越하여서 누구든지 人類的으로 親愛 信賴 및 尊敬을 表하든바이라 그의 訃音이 한번 傳하매 爾我와 遠近의 別이 업시 한가지로 哀悼와 哭嘆을 말지아니하엿다 社會葬儀의 論이 期치안코 서로 合致되며 이에 響應하는 者도 또한 考慮를 要치아니하엿다 盛하다고 하겟거니

× 무릇 ○○의 差別과 政見의 變多와 ○○의 特殊한 것을 뭇지안코 모든 朝鮮人된 者가 이에 衷心으로 贊同할뿐아니라 平素에는 主義와 立脚地가 자못 서로 背馳되는 方面으로부터서도 오즉 純正한 情誼에 依하야 이 盛儀를 贊同 助成하는 바 잇스니 이는 先生의 高德이 그러케 함이로이오 생각하면 더욱 畏敬과 淚慕함을 말지안는 바이다 嗚呼 月南先生은 命途가 崎嶇하셧다 하지마는 그는 途精神으로서 항상 偉貫한 길을 밟으셧고 失意의 人으로 마치셧다 하지마는 또 勝利하신 분인것을 새로히 깨닷게 한다 各方面의 響應되는 形勢를 보면 吾人의 說한바가 獨斷이 아닌것을 首肯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先蹤을 급작이 永訣하는가 하면 돌이어 悵惘하는 悲悼의 念이 솟아난다 先生의 靈은 그 평안이 가실지어다

× 四月七日 오늘은 陰曆의 三月六日 淸明時節이 바듯이 지나간 暮春 和暢한 날이다 아침부터 고요히 또 히 微陽春日이 무슨 祥瑞를 보이는듯 平和한 氣分조차 乾坤에 가득하다 이 또한 先生遺德을 象徵할수 잇게 함이냐 嗚呼天이냐 非이냐 先生의 一生이 이 未困顚하셧거니 그 最終의 날은 天도 한 無準으로써 함이냐? 이 고요하고 平和로운 봄에 平素에 瞻仰함이 懇切하든 先生의 靈을 永久히 또 無限히 訣別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滂沱하는 熱淚가 두뺨을 적시움을 禁할줄이 업도다 先生으로 이러케 가시게 하고 吾人으로 이러케 訣하게 하니 이 天道이냐? 吾人의 傷感함이 是하냐? 非하냐? 비록 百世의 後를 기다리지 안코서도 스스로 ○○者가 잇슬것이다

× 先生을 爲하야 社會葬儀를 擧行하니 이는 그의 故友와 後生과 및 平素에 敬仰하든 者들로서 이 平素에 생각하든 바로써 그 最終의 길을 비단으로 꾸미고저 함이요 그리하야 그 優美한 人情의 眞味를 부치고저 함이오 무슨 나흔 뜻이 잇스랴? 하물며 先生의 高德을 빌어서 어떠한 政治的 意味에 關涉하고 써 그 떠나시는 靈에게 까지 累잇슴이 잇슬 바이랴? 만일 吾人의 會說한 바가 이에 關한바 잇다 하면 이는 더욱 慰籍의 淚를 先生의 靈前에 뿌리어 陳謝코저 하는 바이다 昨日 本欄의 一言이 그 그러하엿든가 삼가 그 先生送終의 本意가 아닌것을 辯證한다 嗚呼先生 萬有宇宙無量한 生命의 宮殿에 가서 항상이 苦衷을 訴할 때가 잇스면 은!

急迫한極東形勢

中露國交斷絶

赤露大使가張作霖에게 最後通牒的抗議

慣例에업는大使館搜索으로

(北京發至急電) 張作霖氏가 共產派巢窟이라고 露大使館을 包圍搜索함에 對하야 露國代理大使는 北京政府에 最後通牒의 意味를 가진 抗議를 提出하얏는데 北方과 露西亞와의 關係는 異常히 緊張하야 國交斷絶은 避치못할 形勢이더라

露國大使館搜索繼續

中露人六十餘名檢擧

(北京發) 露國大使館家宅搜索으로 六日午後二時半까지에 檢擧된 者가 中國人三十五名 露人二十八名에 達하고 또 隣接한 大使館武官室로 逃避한 者도 不少하야 漸次 武官室方面에도 檢擧에 着手코자 尙今 搜索의 手를 弛緩치 안는 張作霖은 此機會에 徹底的으로 露國大使館을 根據로 한 共產黨을 掃蕩할 決心이더라

赤軍滿蒙戰備整頓

南方承認後同盟締結

張作霖에게는武力으로干涉

(哈爾賓五日發) 極東西比利亞에서는 赤軍約六個師團과 騎兵二個旅團이 잇는데 昨年부터 露國은 智多『하바롭스크』附近에 其兵力을 集中하고 歐露方面으로부터 重砲隊騎兵隊를 만이 增援하야 滿蒙國境附近部隊는 戰備를 整頓하는 中인바 露國이 近近 南方政府를 全中國政府로 承認하고 此와 同盟을 締結하야 張作霖에게 武力으로 干涉하려는 準備이더라

急轉直下로 日露關係重大化

滿蒙利權東洋平和名義下에서 日本은斷然不傍觀

(東京電) 奉天軍이 露國大使館及其區域의 家宅을 强制兵搜索한 事件은 이미부터 險惡하든 奉天派와 露國의 關係가 徹底的으로 決裂하게된 關係上 露國에서는 드듸어 全中國赤化의 積極的運動을 開始케될것 갓다 即 露國은 早速히 南方政府를 全中國의 代表政府로 正式承認하고 財政的 武力的으로 露骨的援助를 하야 北伐軍을 促進하는 一方에 昨年末以來 露中國境에 ○○增加하든 勞農軍으로 하야금 奉天軍의 背後를 ○하야 北方軍을 南北兩方으로부터 挾擊하라는 策戰에 出할것은 想像하기 不難하다 果然 그러타하면 此에 及하는 日本의 影響은 滿蒙方面의 日本人의 生命財産及日本의 特殊地位의 侵害에만 그칠뿐아니라 實로 東洋平和가 危殆에 陷하게될것임으로 日本으로서는 斷然코 傍觀할수업슴은 當然하다 그리하야 結局 本問題는 急轉直下로 日露間에 大問題가 될것은 避키어려운 것으로 軍部關係當局에서는 極히 重大視한다더라

奉天戒嚴令發布

奉票慘落、人心動搖

(奉天發) 露中國交의 急迫으로 連日續落을 繼續하든 奉天票는 六日에 드듸어 一千萬圓을 割하야 中國商人의 破産者가 續出하고 數年來 戰禍로 疲弊된 東三省의 經濟的危機에 直面하니 中國人心의 動搖가 甚하야 城內에 不穩의 氣가 充滿하얏슴으로 今明日中 戒嚴令이 宣布되겟고 張作霖 怨嗟의 聲이 高하며 奉天票는 無價値의 時期에 迫하엿다더라 (以上號外再錄)

露館搜索背後에 英國援助가宛然

張氏挑發行動英使外交團에諒解

(伯林六日發) 北京에서 當地의 中國人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奉天軍의 勞農大使館襲擊事件은 張作霖氏가 벌서 計劃한 挑發的行爲인바 張作霖氏는 六日午後에 左傾中國人若干이 勞農代理大使를 訪問할터이라는 말을 듯고 早速히 英公使館에 通牒하야 露國大使館에 侵入할 것에 對하야 同意를 어덧다 고한다 또한 右侵入은 外交團의 他代表者에 諮問하야 勞農大使館에는 國民黨의 秘密히 會合하는 巢窟이라 하니 英公使는 代表者가 中國의 內政에 容喙하려함을 排除하기 爲하야 이르런것이든 엿바 英外相『쳄버렌』氏가 今日 下院에서 對中問題에 關하야 演說함에 就하야 强硬政策을 取하기 爲하야 有力한 援助를 與하기 爲한것이라더라

英兵三十이列立

搜索當時의露館附近에

(北京六日發) 中國軍隊가 公使館區域을 不法하게 蹂躪한 것은 事前에 外交團과 諒解한 結果이라고 傳하나 外交團은 一應 不法이라고 抗議할터이다 當日 中國側의 指揮者는 警察總司法主任이다 그러나 露國大使館前인 和蘭公使館庭에서 外交次長王蔭泰氏가 指揮하엿다 고하며 또한 一方 騷擾中에 英國兵約三十名이 露國大使館附近에 섯섯다 고함으로 此問題는 露中間과 列國間에 써 그러운 問題가 될 模樣이더라

挑戰으로看做

莫斯科政府에

(伯林六日發) 當地에 在한 勞農露西亞側에서는 張作霖氏에 對하야 宣戰布告를 하게하기 爲하야 企圖한 觸擧이라고 생각하고 莫斯科政府는 이가티 推定할수잇는 將來에는 陷하지 안코 따라서 同事件에 對한 對策으로는 抗議以上에 出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더라

國交斷絶覺悟

奉天派益强硬

(北京六日發) 奉天派部內에서는 露中國交斷絶을 覺悟하고 勞農大使館搜索을 斷行하자는 强硬論이 有力하야 或은 實行하게되리라고 觀測되더라

共產派를 掃蕩할目的

露使館區域搜索檢擧顚末

(北京六日發) 奉天軍이 電光石火的으로 共產黨의 掃蕩을 目的삼고 露國大使館家宅을 搜索檢擧한 事件은 이미 急報한바어니와 그 詳細한 報道를 드른번 六日午前十時半부터 奉天軍의 正服將校가 引率한 特別隊, 憲兵隊, 正私服巡警隊三百餘名이 公使館區域內의 露國大使館에 接續한 同大使館附屬建物의 搜査를 繼續하고 다시 正門은 午後도 繼續하야 勞農大使館附屬建物의 搜査를 繼續하고 다시 正門 겻해잇는 極東銀行에도 共產主義者數名이 潛伏하다고 同銀行의 搜査를 要求하엿다 午後一時 大使館武官室의 一角에서 火災가 이러나 猛烈히 타올낫는데 火災의 原因은 內部에서 證據品을 消滅하려고 證據品에 불을 노흔데 一時는 大混雜을 呈하엿더라

不可侵의使館區域

奉天軍이敢然侵入

國際上에重大慣例翔始

列國의諒解與否는疑問視

(東京電) 六日午前부터 午後까지 奉天軍이 北京勞農大使館附屬地인 中東鐵道辦事所에 侵入하야 共產黨員을 檢擧한 事件은 共產派의 不安에서 北京의 人心을 一層 險惡케 하는 形勢가 잇슴은 勿論 更은 一大決意를 가지고 此檢擧를 斷行하고 또 電光石火的으로 共產派의 掃蕩을 計劃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右 中東鐵道辦事所는 北京共產黨의 本部로서 從來부터 注目을 바든터인데 同所의 所在地가 國際上 不可侵의 地域인 公使館區域內에 잇고 또한 勞農大使館附屬地에 잇슴으로 張作霖의 力으로써는 如何히 할수가 업섯든 것이 南京漢口의 事件이 勃發以來 俄然히 北京共產黨의 活動을 開始하는 同時에 中東鐵道內 勞農側의 勢力이 一層 더 急히 白色露國人의 使用人을 解雇하는 等 橫暴를 露骨的으로 出現하는 同時에 北京에 在한 中東鐵道辦事所에 本部를 置한 共產黨과 頻頻히 連絡을 取하야 一擧에 北京을 共產黨의 掌中에 收하려는듯한 氣勢를 示함으로써 張作霖으로서는 北京의 治安維持上 그대로 버려둘수가 업서 六日 襲擊檢擧가 된것인듯하다 그런데 張作霖이 正規兵을 不可侵의 區域인 公使館地域內에 侵入식킨 것에 對하야는 張軍側에서는 미리 列國의 諒解를 어든것이라고 하나 果然 列國이 國際上 重大한 慣例를 지어서 그런 事件에 諒解를 與하겟는가에 對하야는 多大한 疑問이 잇다 六日午後八時까지는 外務省에 本件에 關한 何等公報가 업섯스나 外務省內에서는 누구나 事件이 重大한 것이라하야 共產黨의 檢擧 그것보다도 公使館區域에 張軍이 侵入한 事實을 重大視한다 또한 勞農大使館으로서는 아모리 大使館 그것은 不可侵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附屬地를 ○害하고 또한 自國人의 多數檢擧를 當한 以上 斷然 默過치는 안켓고 張作霖에 對하야 猛烈히 抗議할것이다 그 結果 如何한 重大事가 現出하게될가 日本에서도 가장 重大한 事件이라고 朝野의 注目을 激起中이더라

局地의 中東鐵道辦事所를 包圍後 一隊는 構內住宅을 搜索하야 潛伏中인 國民黨員 李大釗等 第一着으로 中國學生 中國人十二三名과 露西亞人婦女子 中國女學生三名, 露西亞人五名을 檢擧하고 銃, 彈藥, 革命用의 大小旗, 共產主義宣傳文書, 秘密書類等을 自動車數臺에 滿載하여가지고 大使館과 道局關인 遠東銀行도 搜索하얏고 早速 勞農大使館은 ○○門을 閉하얏슴으로 武官室을 ○○하엿다 奉天派가 이 大檢擧를 斷行한 것은 中東鐵道辦事所內의 第三『인터나쇼날』北京執行部, 政治委員會, 國民黨의 北京支部本部等을 目標로 하고 首腦全部를 一網打盡하려든것인바 南京, 漢口事件이 勃發以來 北京方面의 共產黨員은 俄然 活氣를 帶하고 一兩日前부터 便服隊의 一團도 北京市內에 共產宣傳의 不穩文書를 貼付하는 等의 事實에 鑑하야 張作霖은 斷然한 決心으로 此際에 共產黨을 掃蕩하야서 北京의 秩序를 維持하라는것이더라

各國軍隊巡視

(北京六日發) 露西亞大使館은 正門을 閉하엿는데 此의 大事로 多忙을 極하야 出入者는 多하고 附近에는 夕明부터 群衆이 몰리어드럿는바 同館區域入口에는 中國巡警과 衛兵이 警戒하고 國人의 出入을 防止하고 監戒를 嚴重이하며 各國軍隊도 騎馬兵으로 區域內外를 巡視中이더라

中國外交部 嚴重抗議!

共產黨陰謀援助로

(北京七日發) 外交部는 勞農官憲이 共產黨의 陰謀策動 北京擾亂 政府顚覆의 計劃을 援助한 證據가 잇다하야 勞農大使에게 嚴重히 抗議하얏더라

日本參謀部 俄然緊張!

奉露衝突絶對難免

(東京電) 奉天派 今回의 勞農大使館侵入은 全혀 計劃的인것이 明瞭하다 奉天派는 露西亞와 事件을 이르키려한것은 覺悟하엿슬뿐아니라 露西亞도 全中國의 赤化를 妨害함에 最大根源인 奉天派를 殲滅코저하야 昨年來 露中國境附近에 兵을 集中하든터에 이케이 機會에 奉露의 衝突은 絶對로 避치못할것이며 延하야 日本의 미치는 影響도 重大할으로 參謀本部는 七日早朝 鈴木參謀總長 南次官以下 關係高官이 參集하야 一且 有事의 境遇에는 滿蒙에 잇는 居留民의 生命財産을 保護 維持하며 東洋平和를 確保할 方法을 協議하는바 露奉間에 衝突이 意外로 速히 實現되어 滿洲北中國에서 常備하는 駐屯軍이 不足의 感이 잇스면 目下 宇都宮第十四師團과 交代하야 歸還하는것과 姬路師團의 還歸할것을 中止하고 가티 警備에 當케하리라더라

002489

佛은中立을嚴守

中國의政局統一을嚴守

(巴里五日發) 『쑥리앙』氏는 訪問한 記者를 引見한後 佛政府는 事實上 攻擊을 밧지 아니하는 限에는 中國에서는 中立을 嚴守할 主義인것을 斷言하엿다 其理由는 佛國은 中國의 政局의 統一을 希望하고 戰爭中 一方에 偏한 態度를 取할수는 업스나 列强과 同一步調를 取할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附加하엿더라

有利하면參加

外交的으로

(巴里六日發) 佛政府는 南京事件에 關하야 英,米,日三國이 一致하고 또한 佛國은 中國에 在한 利權에 有利할것 가트면 同事件에 關하야 外交的行動을 取할터이더라

佛도增兵

(巴里六日發) 戰鬪艦一隻及『시리아』『모록코』에 在한 兵六百名은 上海에 出動할터이더라

佛艦向中

(巴里五日發) 佛蘭西政府는 目下 印度洋에 巡航中인 巡洋艦一隻에 對하야 中國에 向할 旨를 命하엿더라

畢庶澄無事

(東京電) 某所着電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五日 穆潛氏를 南京衛戍司令에 王拘締氏를 長江要塞司令에 任命하엿다 하며 또한 畢庶澄氏는 四…

英國軍隊 印度人逮捕

革命黨의陰謀嫌疑로

(上海六日發) 六日午後五時 北四川路一帶가 危險함으로 交通을 遮斷하고 英國兵二個小隊約五十名은 日本陸戰隊의 諒解를 어더 租界外에 잇는 印度의 寺院『外ㅣ와라』寺院을 襲擊하야 印度人九名을 逮捕하얏는데 此는 印度革命黨이 同寺院에 會合하야 陰謀를 企圖한 嫌疑인것인데 其中에는 五日夜『따하치』路에서 印度巡査를 殺害한 事件도 包含되엇더라

海軍員制限으로

軍縮委員會又復困難

(『쥬네브』五日發) 軍備委員會는 英代表『세실』氏가 佛國의 提議와 가티 人員數에 依한 海軍力制限에 關하야 本國의 支持를 맛는 사이에는 海軍問題의 論議를 休止하기로 하엿다 海軍制限과 論議初에는『세실』氏는 英國은 海軍人員의 制限에는 反對인 뜻을 聲明함에 對하야 米國代表及日本代表佐藤公使는 이리 少限에 制限되어잇는 海軍力의 制限은 實行할 可能性이 잇는가라고 抗爭하야서 人員制限의 唯一方法은 艦船의 制限에 잇슬뿐이라고 論하엿다 如斯하야 軍縮會議는 又復中止할 模樣이더라

一致하야 協同戰線布張

帝國主義國과勿交涉

【國民政府蔣氏에게電命】

(漢口六日發) 漢口中央執行委員會는 五日 蔣介石氏에 向하야 國民黨의 勢力이 上海까지 達한 것은 上海를 中心으로 帝國主義者는 聯合하야 武力으로 干涉코저하고 國內에도 反動勢力이 勃興中이다 此에 對하야 吾等은 一致團結하야 强硬히 協同戰線을 張하야 勝利치 안흐면 안되겟다 最近 外交多端의 際에 總司令은 上海를 떠나 南京에 가서 軍事에 努力하고 또한 何國에 對하야서든지 口面或은 文書로 外交를 交涉치 말고 帝國主義者가 直接으로 國民政府와 交涉하야 國民政府를 認케하라고 打電하엿더라

蔣汪接近事實?

共產派에는非常打擊

(上海四日發) 民國十五年에 蔣介石氏의 壓迫으로 國外에 旅行한 汪兆銘氏가 今回에 歸國하게 되니 武漢政府는 三月十一日의 第三回中央執行委員會에서 汪氏를 首席委員으로 任命한것은 汪氏의 勢力을 빌어서 蔣介石氏一派를 一蹴코저 한것임으로 今後의 共產黨의 勢力이 增大하는 同時에 蔣介石氏의 前途를 悲觀하엿스나 汪氏는 上海에 오는데로 交涉署內에서 蔣氏와 起居를 한가지하는것은 蔣汪兩氏의 接近이 事實인듯하니 이는 國民黨의 立場을 鞏固케 하고 共產派의 勢力에는 非常한 打擊이라고 觀測하더라

共產派根絶

蔣氏決心

(上海六日發) 蔣介石氏는 共產黨을 根絶시키라는 決心이 强固하야 最近에 이것을 斷行코저 한다 이 外에 北伐은 江蘇, 安徽, 附近外에는 그치고 河南方面은 形勢의 推移에 一任하라는것갓더라

…軍規를 嚴肅히하는中이더라

四路分進

第二次北伐 革命軍

(上海六日發) 革命軍은 다시 四路에 分하야 第二次北伐에 移하기로 되엇더라

治安、租界

兩問題 總工會聲明

(上海七日發) 總工會는 本日 租界回收, 治安維持의 兩問題에 關하야 左의 聲明을 發하얏더라

一、租界回收問題는 事實藥兩方面과 協力하야 國民政府의 外交政策을 援助하고 自由로 租界에 突入하는것과 가튼 行動을 取치 아니할것

二、治安問題도 事實藥兩方面과 協同하야 治安維持에 努力할것

張作霖氏 暗殺手段使用

孫李兩派危險

(天津五日發) 去一日에 暗殺團數名이 天津伊太利租界에 居住하는 國民黨員 孫洪伊氏의 家宅에 侵入하야 孫氏를 暗殺코저함으로 孫氏는 日本租界에 避難하야 患難을 免한바 그 暗殺은 張作霖氏가 孫洪伊、李景林兩派에 對하야 秘密히 命令한것임으로 國民黨系의 有力者及李景林一同의 身邊은 매우 危險하다더라

南軍擊破

山東軍이 明光에서

(東京電) 某所着電에 依하면 三日 山東軍은 明光附近에서 約五旅의 南軍을 擊破하얏는데 孫傳芳의 態度가 何時히 變化될가는 헤아리기 難하다

露使信任狀捧呈

(東京電) 去月二十六日 着任한 露西亞大使『부쓰레히스키이』氏는 信任狀及前大使의 解任狀을 捧呈하고 六名의 隨員과 共히 六日午前十時四十三分에 參內하야 鳳凰間에서 陛見하엿더라

朝鮮鐵道敷設認可

(東京電) 根津嘉一郞, 大倉新太郞氏等의 發起로 出願中이든 南朝鮮鐵道는 總督의 決裁이 엇나 七日 敷設認可의 指令이 發表되엇다 同社는 資本金千八百萬圓으로 延長百三十五哩이더라

八面鋒

○奉天軍이、北京露大使館區域大搜索、共產黨員檢擧、證據品押收、또大事件이突發.

○그리하야中露國交의斷絶은不可避라고、張作霖의能力이能當일가

○그背後에는、英國이잇다고、窮鬼가되면、盜賊질도하거든、國際慣例를돌아볼가、그러치마는또失敗는明若觀火

○極東形勢가突變하면、日本은決코傍觀할수업다고、東洋平和의看板은조치마는、萬事를燥急히굴것은아닐듯

◇本紙號外發行 本社는中露國交斷絶의急報를接하고即時號外를發行하야市內讀者에게配付하엿더라

昨日附夕刊押收 削除後號外發行

신긔한령약 眞正末(진정말)
약효증명
부족증 해소 양긔부족 담증 정신현
왕울병증 몽매증 기억부족
화병 상하혈 늑증 미두체 수족
뇌병 학질 흉통 사몽허 한냉
담요통 경도부조 자궁병 각긔 골
절손 충 매독 림질
藥價 十三日分 五圓 五十日分 九圓
京城府都染洞四十八番地 一生堂

當選謝禮
今般江原道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愛護로當選의榮을獲하와感謝한旨를玆에紙上으로謝禮를表하나이다
襄城郡邑內 吳之默

當選謝禮
今般忠北道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忠北永同郡深川面深川里 陸炳玉

祝朝鮮日報 豐基支局發展
榮州郡豐基面 事務所職員一同
榮州郡豐基金融組合 理事 金森述 書記 徐東儀 金瑀東 柳時普
榮州郡豐基支局 顧問 鄭鎬
榮州郡豐基郵便所 書記 李德敎 金聲鐘
榮州郡豐基西部洞 有志 秦釋
榮州郡豐基公普校 校長 岩田三郞 訓導 金熙奎 李應馥 姜錫奎 韓乙龍 金霆漢 女訓導 八十島ハツ
榮州郡鳳峴面梧峴洞 永昌醫院 李昌成
榮州郡本支局 顧問 姜炳周
榮州郡豐基面城內洞 有志 兪貞濬
平原塵洋服店 榮州郡豐基市場 金龍運
穀物商 榮州郡豐基市場 金憲榮
代書業 榮州郡豐基市場 金熙泳
榮州郡豐基面校村洞 有志 辛道歡
榮州郡豐基面校村洞 有志 [illegible]
榮州郡豐基面金鷄洞 有志 李鍾河
榮州郡豐基面金鷄洞 有志 金大圭
榮州郡鳳峴面梧峴洞 李宅鎬
榮州郡豐基驛在所 職員一同
布木商 榮州郡豐基面城內洞 [illegible]
醫生 榮州郡豐基面城內洞 朴殷楠
布木雜貨 榮州郡豐基面城內洞 金秉憲
布木雜貨 榮州郡豐基面城內洞 金正漢兄弟商店
穀物商店 榮州郡豐基面城內洞 朴基煥
榮州郡豐基面西部洞 有志 白南馥
榮州郡豐基面西部洞 有志 丁奎鎭
榮州郡豐基面西部洞 有志 金大鳳
榮州郡豐基面金鷄洞 有志 [illegible] 大
榮州郡豐基面金鷄洞 有志 李源喩

四月二日(土曜)晝間부터大公開
各館에서競爭中問題이든大映畵! 再覽에期會를일치마시고보시요!
●米國유나잇틧드아ㅣ지쓰社大傑作! 名監督 알바ㅣ트·바ㅣ가氏
鳥人…다크라스·호방크스氏主演! 世界的美人 비리도ㅣ李續助演!
海洋冒險大活劇(다크라스海賊) 全十一卷!
●大월니암폭쓰社大力作
大喜劇(自轉車競走) 全二卷
大喜劇(賣出) 全二卷
實寫 폭쓰週報 全一卷
大悲劇 虛榮地獄 돈ㅣ큐
自由戀愛
市內 優美館

巨人月南先生社會葬儀

悲雲彌滿의漢城
嗚咽하는十萬群衆
당대거인의마즈막떠나는이길
인파에싸힌전시는백일도무광
靈轜조차가시는此日의悲哀

전조선이천상배만민중의 사표이시든고월남(月南)선생의사회장의는 예뎡과가티 사월칠일로 거행하게되어단정(丹旌)이압서자 뒤를 이어각처각디방으로부터 보낸조긔(弔旗)가렬을지어 서고경성은 물론이오멀리하향에서가지위인의「마즈막떠나는길을보려고모인무려 십만의참렬자가종로로부터경성역에까지이르는녀의나렬는길에꼭들어차게되어전조선뎍으로 숭봉하는거인인만큼 장의도엄숙하게되엇다 평생의피가마르도록애쓰시고잠시이루지못하도록 힘쓸이든선생이우리의모든 일이두서흘집기전에원이떠나시게되니 연도에모인군중의 얼골에는오직비애의빗이떠돌고 「뜻깁흔한식이런이어떠뜻한봄해빗도 이날에는빗이업는것가탓다 선생의령구(靈柩)가빈소(殯所)에게실때는 그래도든든한마음이잇더니 관(棺)을맛이 靈轜에모시고령이가한양을떠나게되니어허선생의 영영돌아오시지못할을 새로늣기게되엇다 지금이후로는선생의순순한가르침을 다시들을수업고큼힘한기상을 다시보입지못하게되어오죽귀에이미익은 말슴을긔억할뿐이오이미보인자최를추모(追慕)할뿐이다

靜肅敬虔裡
參列者四千
天道教서모혀靑年會로
학생대를선두로떠낫다

고월남(月南)선생의 장의당일인칠일은 마치선생의 영원한장래를 축복하는듯이 한울은거울과가티맑고 아름다웟스며 쉬임업시불어오는 생긔로운봄 바람은 뜻잇는사람의 마음을더한층 비통케하엿는데 시내에 허터저잇는 삼십만백의민중(白衣民衆)은 영원의나라로 떠나가는거인(巨人)의 마지막길이나마 참관코저 남녀로소(男女老少)의 백의군(白衣群)은 거리거리에 산을일우어차마(車馬)의통행조차 극히곤난케되엇는데장의행렬예비장소(葬儀行列豫備場所)인경운동(慶雲洞)텬도교당(天道教堂)에는일은아츰부터 참렬자가 조수가티밀리어정각인오전열한시에는 천여명의 사회일반유지(社會一般有志)와삼천여명의남녀학생의단톄와 다수한조긔(吊旗)와만장(輓章)은산을불부는바람에나붓겨한울을 쉬를듯하얏는데 정각인한시삼십분이되자행렬는서서히 진행을시작하야령구(靈柩)를 모신쌍두마차(雙頭馬車)에는 각계급을대표한 일반유지며표자(一般有志代表者)팔백여명의 남녀로유(男女老幼)가집불(執紼)을하고작일에보도한바와가튼 장렬순서로 행렬는장엄(莊嚴)한보조(步調)로선생의령구가 게옵신 청년회관을향하야서서히 진행을 시작하니로변일대(路邊一帶)는장의의식을관람코자하는 군중으로인하야 인산인해를일우엇더라

午前五時에
靈柩移奉
종로청년회로

별항보도와가티 고월남(月南)선생의령구(靈柩)는칠일오전다섯시이십오분에종로 청년회(鍾路靑年會)간부(幹部)급직원(職員)의 인도로 재동 륙십팔번디(齋洞)선생의자택에서령구자동차(靈柩自働車)로 종로 청년회관으로 옴겨모시엇다는데 선생의령구가 댁을떠나실림시에 선생의유족들은 복바처 올라오는 슬픔을 참지못하야일제히 오열(嗚咽)을 시작하니 엽헤잇는사람들은 무언중에일제히 눈물을 먹음엇더라

悽愴한樂曲裡
發靷式擧行
텬도교당서청년회까지
비듬이업시쌔친참렬자

오후한시반경에 텬도교회를출발한사회장의준비행렬(社會葬儀準備行列)의 전렬(前列)이청년회관압헤다다르자장(長蛇)의진(陣)을들인듯이만흔남녀학생의 행렬이 지나간후뒤를니어하날을가릴듯이 만흔 됴긔(吊旗)와 만장의행렬이엿나자령구(靈柩)를 모실령구 마차가 청년회관압헤당도하기는 오후 두시가 거진된때이엇스며 그때까지 행렬의후렬은 경운동(慶雲洞) 텬도교회를 미처출발치못하야 실로조선초유의사회장의인만큼또한 행렬도그와가티 길게쌔치엇는데 일방으로 월남선생의체백(體魄)을모신 령구는 동두시십오분에 장의위원(葬儀委員) 제씨의운구(運柩)로 청년회관 소년부도서실(少年部圖書室)인림시빈소(臨時殯所)를나시어령구마차로 모시자선두에선악대(樂隊)가 후렬에선악대가 한에비애극(悲哀劇)이라는 처량한 악곡을주악하야 장식행렬에 참가한 상주(喪主)와 일반됴객은 물론 연도(沿道)에도렬(堵列)한군중들도 슬픔을 익이지못하는듯한 공긔가 넘치는일방으로 극히경건정숙(敬虔靜肅)한긔분이 떠돌아 도렬한군중으로하야금 당시의사표(師表)의성해(聲咳)를마음속에 그리게하엿다

葬儀行列出發
警護部長을先頭로
집불자는예정보다삼배
靈輀旣駕에聲咳彷彿

령구는마차에 모신다음에 차차 발인행렬이 움즉이기 시작 하얏는데 행렬의선두에는 경호부장(警護部長)의 뒤에 진영(眞影)을 모시고그다음에는 소년척후대(少年斥候隊) 경성악대(京城樂隊) 녀학생과 남학생대 됴긔대 만장대명정(銘旌) 위원장 각부장 그좌우로집불(執紼)한일반사회유지들이모다늘어서고다음 중앙으로 령이(靈輀)를 모신후 상주와일반친척과 위원들이늘어서고 그좌우로또한일반유지의 집불인이 늘어섯는데 처음예정은 전후좌우의 집불인을 각각이백인식 예정하얏섯스나 예정이상으로 모혀드는집불인은각각예정수의삼배이상이나 되엇스며후렬로는일반수상인이 수행하얏는데 그도또한 예정보다오륙배의 증원(增員)을 보이게되엇섯고 그후에는삼우회(三友會) 악대가 섯고그후에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과 경호부장이 경호하야 제제창창(濟濟蒼蒼)한 발인행렬이 정숙히 지나가자 연도에라렬한만도의 군중은 엄숙한태도로잠간동안고개를 숙이어 체백(體魄)조차 떠나가는원로(元老)의 마

禮式特別擧行
基督教人만으로

고월남(月南) 선생사회장일인칠일 오전다섯시경에 시내종로청년회(市內鍾路靑年會)에서는 고월남(月南)선생의령구(靈柩)는 가회동(嘉會洞)사택으로부터 종로청년회관 이층에다옴겨모신후 동일시정각부터 청년회(靑年會)리사(理事)직원(職員)각부위원(各部委員)급시내교역자(市內教役者)들도서특이고월남(月南)선생과 친분이 두터운 이들만이 모히어 례식(禮式)을 거행하엿는데 참례한 자는 약삼백명으로서 그중에는 고선생의 유족들과 시내에거주하는 중요한 서양인들도 전부 참석하엿섯는바 선생의 령구에는 오색이영롱한 화환(花環)과 화속(花束)으로써 더히엇섯는데 당일례식의 중요한순서는 조선긔독교청년회 련합위원(朝鮮基督教靑年會 聯合委員)김필수(金弼秀)씨의 긔도(祈禱)와 조선녀자 긔독교청년회(朝鮮女子基督教靑年會) 김활란(金活蘭)양의조가(吊歌)와구자옥(具滋玉)씨의애도사(哀悼辭)와 어비신(魚丕信)씨와 유억겸(兪億兼)씨등의조사(吊辭)와 변영서(邊永瑞)목사의 축도(祝禱)등이잇슨후 동일한시 삼십분경에 페회하엿다는바 비애(悲哀)를 먹음은 귀향한 찬숑가(讚頌歌)의 소리는 청년회관의 몰창으로 어거리로 흘러나아가 길가는사람들의 마음을더한층 비통케하엿더라

警官總出動
사복경관은비밀리에경계
自働車刑事隊東奔西走

조선에서는 처음잇는 사회장일뿐아니라 선생은조선의 거인인만큼 작식일인몃칠전부터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시내각서장 회의를열고 사회장당일의 경계방침을 협의하엿섯는데 시내각서와 경긔도경찰부에서는서장(署長)과장(課長)이하가 전부총출동하야 정복경관은 도로를나리하며 사복경관은두파에 갈리어가지고일파는극비밀리에광경을 엿보게하고 일파는 십여대자동차에 난호아타고 이곳저곳으로 휘모다다니며 만일을 경계하얏섯다

出動警官六百

사회의 원로(元老)이며 민중의사표(師表)이신 월남선생의 령이(靈輀)가 멀리한산(韓山)유택(幽宅)을 향하시는 보도를들은 삼십만대경성의 시민들은떠나가는 거인(巨人)의 령이으로 일은아츰부터 경운동(慶雲洞)일대를위시하야 종로이뎡목에서부터 남대문통(南大門通)일대까지 좌우인도(人道)에 모혀서 기다리기시작하더니 정오승에 일으러는 종로네거리와남대문통일대 가중앙의차도(車道)만남기고는 송곳하나 꼬즐너유가업서 무려십만이상의 남녀시민이 라렬케되엇스며 이와가티 다수한 사람이 모혓슴으로만일을경계하기위하야경긔도경찰부에서는 시내각경찰서를 지휘하야산(森) 종로서장을총지휘관으로 경관륙백여명을 출동시키어 엄숙한경계를하게하얏더라

全道悲哀의四月七日!

各方面網羅
執紼人士五千
각계급으로모힌집불자
今般이初有의壯儀

칠일에 거행된 고월남(月南)선생의 사회장의에 선생의 령구(靈柩)를 모신 쌍두마차(雙頭馬車)에는 압뒤에네줄기의집불(執紼)을달어전후좌우에백여명의사회일반유지(社會一般有志)가이물엇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전긔오천여명는 실로히전사회각층의 대표자들로서 형형색색(形形色色)의인사(人士)를망라하엿다는데 그와가티 각계급을통한 일반유지가 집불(執紼)을하기는 이번이 전에업든일이라하겟더라

開城各團體
代表를派遣

경긔도개성(開城)에서는각단테가 협의한결과 개성녀자교육회(開城女子教育會)에서 어윤희(魚允姬)녀사와 최□□(崔□□)녀사를 대표로선정한후 됴긔(吊旗)와맛부의(賻儀)신원을가지고 경성에 올라와장식에 참예케하얏고 기타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에서는김한형(金翰衡)을대표로도됴긔(吊旗)를가지고 장식에참렬케하고 송도청년회(松都靑年會)에서는대표장영(張暎)씨와 됴긔를 보내엇스며 기타중앙회관(中央會館) 유도부(柔道部)에서도대표김홍식(金弘植)씨를보내엇더라

東亞商店以外
六店閉店
경의를표하야

금번에거행된고월남(月南)선생의 사회장 당일(社會葬當日)인 칠일에시내인사동(市內仁寺洞)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외 목개상점에서는조의(弔意)를표하기위하야폐점(閉店)하엿더라

參加團體百六十餘
吊旗輓章四百
만장도이백삼십여류

금번에 거행된 고월남(月南)선생의 사회장의(社會葬儀)에 전조선각디에서 참가한 단테는일백륙십여단데요각단데(各團體)나혹은 개인(個人)으로부터 들어온 조긔(吊旗)와 만장(輓章)의수효는 조긔(吊旗) 일백칠십여류와 만장(輓章)이백삼십여류로 전부사백여류에 달하얏다더라

『演說잘하는先生의喪行』
구경든어린애의
란보하는이약이

고월남(月南)선생의장의행렬이 종로통을 통과할즈음에성대한장의 광경을 바라보든소년이그엽헤잇든그의 동무에게『애누구의장의인데저러케장하냐』하고물으니그엽헤잇든소년은태연히『앗다 늘 연설잘하든그로인이돌아갓단다』라고대답하엿다、이것만보아도선생의일면을알겟더라

公州各團代表
大田으로派遣

충청남도공주(忠南公州)에서는 사회단데에서 협의한결과 공주긔우단(公州記友團)에서대표윤상갑(尹相甲)씨와조선소년군공주지부(朝鮮少年軍公州支部)에서 서겸순(徐謙淳)씨와 공주청년회(公州靑年會)에서 배상인(裵相仁)씨와 공주로동협회(公州勞働協會)에서 문봉의(文鳳儀)씨와 공주긔독교청년회(公州基督教靑年會)에서김수철(金洙哲)씨등의 각대표를 대뎐(大田)으로보내어 월남선생의령구(月南先生靈柩)를모신렬차가대뎐에도착할때에됴긔(吊旗)를들고경됴(敬吊)의뜻을표케하얏더라(공주뎐화)

參列學生
男女三千餘
그중에개인참렬자가만하
私立學生은거의全部

칠일에 거행된 고월남(月南)선생의 사회장의(社會葬儀)에 참가한학생은남학생이이천여명녀학생이일천여명으로도합삼천여명에달하얏는데 그중에는 정식으로학교당국에서 참가한 학교도잇섯스나 그러나 대다수는개인(個人)으로써 참렬한 학생이 만헛섯는데 장의에 참가한중요한 학교로는연전(延專) 세전(世專) 보전(普專)경신(儆信) 청년회학관(靑年會學館)이엇스며 녀학교로는 정신(貞信)반도녀자(半島女子)근화(槿花)배화(培花) 등으로역시사립학교학생은거의전부를차지하엿더라

平澤靑年會
代表二人派送
평택역에서는
조등들고봉송

진위군 병남면 평택(振威郡丙南面平澤) 진위청년회에서는월남리상재(月南李商在)선생장식행렬에 참예키위하야평택 사회대표로진위청년회(振威靑年會)위원(委員)김영주(金永柱)박영환(朴永煥)씨를 파견하얏스며 당일밤 십이시에평택역(平澤驛)을 통과하는 령구를 봉송키위하야군내유지와 청소년단데(靑少年團體)각신문지국에서는 조등(吊燈)을 들고평택역 푸라트홈에서봉송하기로되엇다더라(평택)

午後三時까지
以下는朝刊에

賻儀金遝至

▲二十圓 佛教教務員
▲五十圓 每日申報社
▲三十圓 京城日報社
▲一百圓 副島道正
▲一百五十圓 申錫雨
▲一百五十圓 崔善益
▲五十圓 安在鴻
▲五十圓 曺偰鉉
▲三十圓 中外日報社
▲二十圓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十三圓 親睦社及同志社
▲五十圓 崔昌學
▲二十圓 鮮一紙物社
▲三十二圓 耶蘇教會一同
▲五十圓 白象圭
▲二十五圓 全南筏橋浦社會團一同

▲三圓崔鳴煥▲十圓韓基岳▲十圓白寬洙▲二圓李混燉▲十圓李容九▲二圓金承淳▲一圓金俊淵▲三圓洪性憲▲三圓朴教緒▲三圓□命煥▲十圓朴承稷▲二圓車演回▲五圓成錫泰▲一圓張鳳鎭▲二圓李民綱▲二圓韓貞洞▲二圓姜仁澤▲一圓閔征植▲二圓鄭秀日▲一圓徐廷敏▲一圓趙奎洙▲一圓任昌宰▲二圓李泰盛▲一圓李圭奭▲一圓慎麟範▲二圓鄭其和▲一圓五十錢李鍾鼎▲二圓崔星源▲二圓李益相▲二圓崔在高▲二圓崔恩喜▲二圓洪鍾悅▲一圓李吉用▲二圓許鍠▲一圓李象範▲二圓李觀熙▲三圓崔瑛穆▲二圓申敬淳▲二圓張志暎▲一圓金乙漢▲一圓鄭雨彬▲二圓姜昊▲十圓崔奎東▲一圓李鍾蓁▲十圓徐相勳▲一圓馬濂▲十圓張鉉植▲三圓玄錫健▲一圓金炳根▲一圓文致瑋▲一圓朴孝基▲五圓李敬稙▲七圓京城寫眞協會▲五圓馬錫龍▲五圓金基宅▲二圓趙成鶴▲十圓侍天教靑年會▲五圓洪正求▲五圓宋鎭禹▲十圓李鍋九▲十圓開城女子教育會▲三圓鄭萬濟▲十圓朴在灼▲一圓李鍾郁▲五圓三共實業社▲三圓李昇薰▲三圓李興奎▲一圓梁天錫▲十圓吳仁殷▲十圓李彰鎬▲一圓邊夏涧▲一圓孫在鮮▲一圓姜信皓▲五圓安岳靑年會▲三圓木浦耶蘇教長老會▲三圓鄭根▲五圓崔成翰▲十圓國一舘▲三圓安岳東亞日報支局▲二圓羅宜壽同夫人▲五圓殷成河▲五圓金殷鎬▲五圓張鴻植▲五圓水原少年斥候隊▲五圓鄭觀天主教靑年會▲三圓李東奎▲十圓開城市內教友一同▲二圓中央基督教靑年會勞働夜學愛友會員一同▲五圓馬場里三角農友會▲五圓朴容均▲十圓宣川基督教靑年會

累計 六千九百六十二圓五十錢

◇사진설명

◇상단 (右)은아참부터 모힌종로의군중(中)은청년회에서 열린긔독교 례식 (左)텬도교당에모힌각단데 대표와조긔

◇중앙 영원의길을떠나시는선생의령구와명정우편은상주

寸虫藥

絶對無二한寸虫新藥

보라 可恐할寸虫
人體榮養分을盜吸하는

本劑는今番東西洋醫學士에서積年經驗에서效驗한最新處方에基하고또多數한虫病患者에게大家의實地研究를經한特効藥을作한寸虫新藥으로本院에서特別精選하야製造한者로其効가偉大迅速할이形言키難하니寸虫患者諸君은安心使用하시고再發에念慮가全無하오니

藥價 一劑 一圓三十錢 上同 二劑 二圓六十錢 送料金은本院에서負擔함
京城仁寺洞二百四番地(鍾路署前)
發賣元 寸虫病專門藥院

急告

榮山浦驛과海南邑內間에每日確實이自動車를運轉하오니僉位는照亮하시와愛顧하여주심을仰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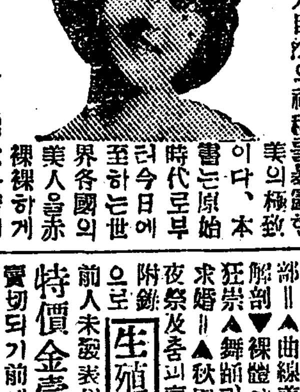
榮山浦驛發 午前十時五分 海南邑內着 午後○時三十分
海南邑內發 午後二時 榮山浦驛着 午後六時

全南羅州郡榮山浦
第二坂本自動車部
電話 二四番 五六番

裸體市場!
보라!天下의無類珍書 一讀肉香에魅殺되는!

豊滿하고艶麗한女의裸體美

▲東西古今의裸體美人을赤裸하게解剖插破한豊滿하고艶麗한肉體美그의曲線美는大自然의神秘를暴露한美의極致이다、本書는原始時代로부터今日에至하는世界各國의美人을赤裸裸하게解剖하고그의露骨한解說과密圖는他에類書가업다。



◆澤田順次郎先生新著▲四六判洋裝二百卅頁▲裸體寫眞及密圖入
◆代金引換送料廿五錢 ◆前金注文送料八錢
●振替東京一五八番 ●東京麻布區富士見町三 正文社書院

(內容의一部)▲裸體美와色慾刺戟▼女子部分的美感▼乳房과臀部▲曲線美와性慾▲비나스의解剖▼裸體에對한感想▲裸體의狂崇▲舞蹈과裸體藝術▲舞蹈과求婚▲秋田音頭、盆踊、戀愛夜祭及春의裏面▼其他數十章또附錄으로 生殖器神의奇習 是進

前人未發表의大膽한解說을希望하는者는 特價金壹圓五拾錢 賣切되기前에新聞名을記入하야葉書로註文하라고申請하면代金引換郵便으로密送함

梅毒?

신구병의백약이무효하면년니개발되는련하약증이라도본원제는한제녹용이내에거근되야평생개발치아니함
약가상품십원 완고용별품한제삼십원、송료국십오전

淋疾?

남녀간림질에백약이무효한난치의고질이라도본원비제에불근가루를쓰면불과일이십분에소변으로가래충가튼부정한것이여출하고거근되야경발치안는세계적선약을써보시요약가상품칠원、완고용별품삼삼원송료국십오전·만일에본원제를써서조금이라도범연하면어데까지라도무료로전치해드림을증명하오니의려마시고써보십시요

京城府禮智洞二十五番地
內外科及各科 濟衆院
振替京城一五、二二一番

지봉틀及部分品部屬品
京城鍾路二丁目三
電話光化門一六九三番
楠商店

當選謝禮

今般咸興郡學校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切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와玆에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咸興郡州北面雲峰里
朱斗燦

當選謝禮

今般咸興郡學校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切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와玆에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新上 李道永

當選謝禮

今般道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切하신同情으로當選에榮을得하와玆에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咸興中里
蔡容默

大路에强盜奪金

가뎡평론
무서운어린이의 이사망률을보라
塔園生

◇작년도 경성안에서 사망한어린이의 통계를보면 삼천명이 넘는다한다 어른의사망률에비하야 육칠십의 앙앙한 권도를압헤둔 어린이사망률이 비교뎍만흔것은 가장한심한일이다 이것은어린이라 신뎨의저항력이 가장 약한까닭에 질병에견듸지못하고 사망하는일이 만흔까닭에 사망률이 만흔것이나 이것은죽음커디에잇지앗는 그들이 죽는것은별수나 엇가업셀어다

◇그러나 어린이라는것은 환경에대한 저항력이 약한그것만큼 그만한보호가 잇서야할것이다 그러한 보호가업고는 텬명을다살기는 어려운일이다 다른짐생가트면 텬대뎍으로 생활능력은 나올때부터풍부히나서 질병에대한 저항력도 강하지마는 사람의아들이란 그러한생활능력이 업는데신에 충실한지혜잇는 보호자를가진것이다 이어는 즉부모들이다

◇부모되는 사람— 그중에도 자식의양육에 직접책임자인 어머니되는이는 어린이의사망에 대하여는 이것을엇더한 운명에다가 부칠것이니오죽은것은얼마콤책임을져야할것이다 부모되는 사람으로 그자식을 죽이게하는이는 물업을것이나 사실상 질병의저항력이 가장박약한 어린이에게 병이들게 하는일은잇다 그러면이것은 즉자긔의자식을 죽이게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와가티불행을보게한것은순전히 무지한까닭이다 한가뎡에서 주부되는이가 어린이를 길르는때에 병우나부지하면 그러한인생으로서 뎨일비극인죽엄을 맛으키는일도잇고 또는생명까지는 일치앗는다하여도 가뎡에 우환질고가 떠날때가업는동시에 그집안의평화라는것은 도뎌히볼수업는것이다 엇더한 의미로보던지 주부되는이는 일가를다사리는데에 충분한 지식의준비가 업서서는 안될것이다

분투노력하는 구미각국의백성
세계대전후에그들은 엇더한자각을어덧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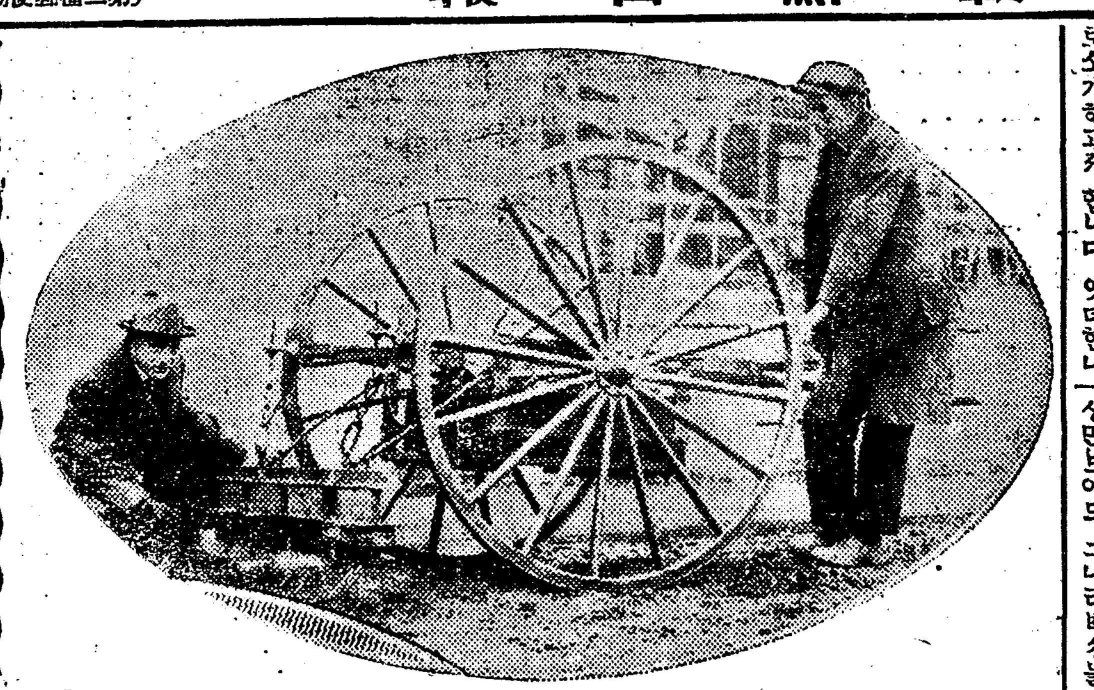
독일의아이

구미각국의 육영(育英) 상태와이정을 시찰하고 돌아온동경엇던소학교 교장의말을 들은녀로소개하고저 합니다 엇더한나라를물론하고 모다잇는힘과 정성을다하야 백성의행복과 진보를도모하되 그중에특별히 놀볍만한곳은구주대전에크게실패한

독일 (獨逸)이니학교에 단이는아이들의상상만보아도 그나라백성들이 얼마나 철실한지를 알수가 잇드랍니다 독일학생들의 창가소리와시는 말할것도업시 그큰큰한긔개를엿보게 하나니 더욱이큰눈을빗나게 휘두두며 주먹을잔뜩쥐고 웅장한조자(調子)로 당당하게불으는 태도를보면 저들이장차장성하야 썩내일 그위대한힘을보는자로 하여금 스사로추측케하고 아울러경탄하기를 마지안케 되엇섯드랍니다 그리고저ㅣ유명한『라인』양 언덕우첩첩한바위로써 싸혀서된 절벽으로밧게 볼수업는 그야말노

흙은 한명이도 차지커불수 업는듯한좁은길에바위를쌔트리고 돌을펴서 좁으나마 평탄하게길을만든후 그로부터 그리도사람을 통행케하고 길을된권 쳡히어 한편호도는포도를심은 그아름다운 행동을볼수잇섯답니다 령토(領土)가 좁아진고로 바위우에라도 포도를심을수밧게 업다생각하고 긔어히 그어려운일을 행하는 농민들의무서운 노력은 가히칭찬하지안을수업는것 이올시다 『라인』의경치는 텬下뎍으로 아름답기도하려니와그보다도독일사람의

정력 을누구나놀라지안흘수업슬것입니다



※……자석(磁石)을응용하야땅에떠러진쇠를줍는기계……※

체크슬로백

「체크、스로박」는 저ㅣ구주대전후에 독립국이된 적은나라이니이나라는 몃백년동안을 외국의지배를 밧고잇든 그만큼독립과진보에 컨력들다 하엿습니다 이나다사람은 누구나데조를 매우조화하야 데조로써 튼튼한신톄와굿센맘과 나라를 사랑하는정신을 기르다고 무한한노력을 합니다 매년이나다수부『색라하는데도나파』는곳에서 행하는전국의 데조연습은 실노볼만하답니다 이것은엇단코 만흔사람들이 한사람의

명령 알에데조를한다든지 발을 마처가즈편하게 나간다는것이 아니요 참으로 그들이하는 데조는생명을걸고 나가는 애국운동입니다『지엔고』는사람의독립옹호운동의 참정신이 이데조연습회의형식을 취하야 나타나는것이라할수잇습니다 구라파 한가운데에선 적은독립국을 무준히지탕하겟다는 그들의 로력은실로여간하지 안흔것입니다

불란서

불란서의『벨단』는구주대전때에 여긔까지 독일군사가 처들어왓든

전장 (戰場)이니사십만의불란서사람이ㅣ싸호다가 죽고 삼십만명이행위불명된 비참한형세를 나타낸곳이니 만흔시일을 경과한오날에도 몸에소름이 끼쳐 참아볼수업드랍니다 전쟁후에 그거을그대로 내버려두어서 탄환파총파칼이 아직도함부로 널려잇서쏙풍우가 지나간수수밧가티 황량하기짝이업스며 보는이의 한즐기눈물을 쏫는드랍니다 불란서가 아모리전쟁에이겻다힐지라도이러한 손해를밧고는 도뎌히경제의 회복이곤난할것이니 불란서에서는 방금전쟁으로 인하야바든손해를 회복하기에 로력한답니다(六)

童話 무엇의힘일가(一)
李燦述

녯날어느시골큰 동리 어구에다쓸어저가는 오막사리집한채가잇는데 이쓰러저가는집에는 늙은할아버지내외와 화영이라는 어린아이가 잇섯습니다

화영이의 아버지는 화영이가두살먹든해봄에 다시 돌아오지못할길을 떠나게되고 사랑하든어머니조차 그이듬해 가을달밝은고요한밤에 화영이를 잠들여노코 조용히나간후 지금까지돌아오지아니하야 부모님을 다일허버리고 할아버지내외에게 양육을밧게된 불상한 친구엿습니다

하로세ㅅ내의밥도 고사하고 한째의 죽조차어려웟스며 치운겨울이라도 솜옷과 두루마근고사하고 다해어진겹옷도 입기가어려운참혹한 살림이엇습니다 어린화영이는 머리가희고 허리가굽은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배를골코 헐벗어가며 어느듯화영이가 열살이되엇습니다 하로는케집압흘 지나게되엇는데 여러아이들이 와글와글하고 글읽는것을보고 자긔도 서당에단녓스면하는생각이 잇섯스나 어린마음에도 집형편을생각하고 그만아모말업시 집에돌아왓습니다

화영이는 서당에단이는 동무가부러워서 몃칠을두고날마다 일흔아츰에 오리가념는 큰동리서당마당에가서 놀다가 저녁째이면 돌아옵니다 어느날서시서당마당에서 놀써에선생님의 화영이를불러 여러가지로 물어보시다가『너서당에 단이고십지아니하냐』하고 물으시니까화영이는잠ㅅ코 한참이나 잇다가『선생님컨들엇지 글을배와 조흔사람되기를 실혀하겟습니까만은 우리집은 넘우가난하야 책살돈도업고 수렴(월사금파가튼것)도내일수업스니 엇더케 서당에다니겟습니가』하는 쇄효고도애타는 화영이의말을들은 선생님은넘우감동되어『너는 수렴도내지말고 단여라』하시며 친자책을내어주엇습니다 화영이는 넘부나 조와서엇절줄모르고 뛰어서집에돌아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선생님말슴을엿주엇더니 서당에 단이라는 허락을어더섯습니다 하로한빼의 밥을변변히못먹고 비록헐버섯슬망정 비가오나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더운날이나치운날이나도모지 사관치안코 꾸준이서재에단기며열심으로공부하는동안에어나듯삼년채되는해여름 흠당하엿습니다 어느날여러동무와 함께시내물로목욕을나가다가 개천가에서 개고리의애처롭게우는소리를 듯고 화영이도 여러동무와 함께발을멈추엇습니다 개고리의 괴롭게우는소리는각금각금 커며 들니렵니다 여러아이들은 모다발자ㅅ소리를 내지안코 숨소리조차나초와가며가만가만개고리소리나는 곳을 차저가더니『아이쿠 커밸보아라』하고 모다뛰어물너섯습니다 과연길이가 길고큰밴이개고리의발을물고눈만밥바엄바하고 잇섯습니다 여러동무는『아ㅣ밴이 개고리잡어먹는다 조용이서서 구경하자』하고 다시금멀시간이되엇습니다 개고리는애처롭고불상하며 밴은 악독하고얄밉다고 생각이나서 참어죽이려하엿습니다 여러동무는 화영이를가로막으며『구경이나 하자고』하고 말니되 도모지 듯지안코『아ㅣ가튼미물의즘생으로 약한놈을 잡어먹는밴아 내손에죽어보아라』하며 늘엇든큰돌노단번에죽사를시켯습니다 그러나두어린화영이는 개고리를 붓잡아가지고 여러동무와가티 목욕도가지아니하고 헐리집에 돌아와서 사해유(밴늘린데바르는약)을먹이고 다리에발라서 개천가에노와주엇더니 개고리는 고맙나는듯이두어서너번이나화영이를치어다보고는 그만풀속으로 돌어가버렷습니다

그해에화영이 집에서는입동사를종하엿는데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께들일양고 할머니는 밀떡을만들어 주엇습니다 화영이는떡을 가지고 서당으로 가는데마층길가에서 김매든 여러농군들은 부엉이를 한머리잡어가지고야단입니다

『부엉이눈을 먹으면눈이밝아진다더라나다구』

『아니부엉이피를먹으면 기침이낫는다드라나주련』

『야ㅣ날개는나다구바쳐게』하고케각기쏠것을말하며달라고짓거립니다 화영이는 부엉이의죽엇이럼박한것을 불상하게 생각하야여러농군들에게이가리말하엿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선생님들이밀떡을갑개식들밉려이니쏠내업는산부엉이를주시지말고노아주시요』하고 애걸하니까농군들은 그럴듯이 생각하야떡도 먹지들안코 부엉이를 노와주엇습니다

개아미社會와 比較하야(五)
梁大宗

그리하고또

이朝鮮에는各種各樣의宗敎團體가잇는줄안다 그宗敎團體中엔 旣往(或은今日外지)朝鮮의文盲退治에多少間힘을들여幾何間의貢獻이잇슴을 想像한다 그러나 지금말하고저하는바는 現今으로부터將來를期하엿다 우리朝鮮의文盲을退治함에(卽朝鮮人의文化를向上시킴에 다시말하면全우리民族의幸福을爲한企圖의第一步엔)奮勵努力이 잇기를 (旣往잇섯다면加一層) 敢히바라는바이다 다시우리의慾望을露骨的으로말하면 엇던宗敎團體임을不問하고 그가眞實한朝鮮的의『宗敎』가될ㅅ면 그團體의모ㅣ든事業(布敎或은宣敎及其他事業)보다먼저이事業에 着手하여달라고請함일것이다(設令 무슨大權威를가진宗敎 다或아니듯는다해도) 그러나萬一에 이事業을等閑視하고 一部特殊階級(智識階級其他)에만 布敎或宣敎함으로써ㅣ宗旨를삼는다는『宗敎』가잇다하면 如何한宗敎임을莫論하고 또는何如한背景과歷史의有無를不問하고 이朝鮮에잇서선永遠이그宗敎的生命과 그權威가消却焦滅될것이요 將次覺醒할朝鮮의幾千萬大衆의그巨大

◇우미판독자의 우다권은리외에◇

新造太陽
星兒

아아! 四角의太陽
天空은네모로접어노흔
그구멍까지가 지금은
新어진우리의 눈에다
물빗슬고단판빗슴 가치오
배암의혀바닥가티뭇!
는구나
×
蒼空은人類의所有 宇宙의物
이아니냐
모든生物은 制限업는自由 呼
吸의自由를갓지안엇느냐
그런데그놈들은 우리들의天
空을다빼앗고
四角의바늘구녕만한저것을보라구
아아 인제우리에게는 陰慘한監房속에서
가는목숨을고다니는生物에
게는
그것은分明히太陽이되엇구나
아! 四角의 太陽
×
여보게! 첫男의몽모!
약속도자나!
쉬ㅣ 가슴의소리를죽커가며
발자욱이 마루장을두르다
여보게! 그러커만 갑갑해
하지말게
獄外에남은이는 지금얼마나
빗분줄아나
鍊鐵!
蒼激!
이모든우리의피의몸처든
第二의太陽을造成하고잇지안나
×
동모야 ─困해하지마라
그예의우리는 반듯이
이四角의太陽을 집어던지고
圓形太陽을 擒하데다쇠혀
이구녕에들이밀리라
그때의우리는 囚徒가아니다
蒼空의아들이다 廣濶한太空
의 ─
동모야! 고단하지! 그러나조금만참자

吾儕今에 바外지고말가어려생각한다

面務는粗雜하고

大體─面(面事務所)는自主的行政機關이냐 或은半民半官인 民衆에對한 半治半利的인부슨機關이냐?

아니다 面(面事務所)는其面內에잇는一般民衆의全的幸福을圖謀實現(世間實實中)하는 一個自治行政機關? 인줄노집작한다

그러커든民衆은 그全的幸福을圖謀하여주는對價로(錯覺인지모르나) 其面(面事務所)을通하야 稅金을(地稅家屋稅、敎育費即通稱學校費、附加稅其他等)을바친다는것이事實이아닌거진말인가?

응 그稅金은써障金으로 놉어가는것이라고? 그런爲先 面長(判任官待遇)以下 職員의俸給 同面事務所燃藥物 器具及至於飲茶 柴炭 宿直料 出張費等의經費가窮極的으로쳐서따져보면다ㅣ무슨돈(金力)으로되나?

何如間에面(面事務所)에선 民衆의幸福을爲하야各種의施設과 各方面의努力을繼續한다는事實이 아니라고할수업다

그러으로써 左右間朝鮮에잇는 面(面事務所)은어쩌케보면民衆의幸福을圖謀하는 그第一條件인文化向上을 圖하는 一個機關으로볼수가잇다 (一部有財産家有力者뿐아니라 [illegible] 하고一般面民의) [illegible]

보라! 面長以下 面의 [illegible] 職에게신이各洞[illegible] 文化向上을企圖하는面 [illegible] 氏가月一回或은必要에따라 [illegible] 回式모혀서 무슨方針을 計劃하야 [illegible] 他卽道路修繕 衛生淸潔 敎育費(學校費)督促 農事改良 學齡兒童就學獎勵 視察長官敬仰接待?等의諸事項으로 그職員되시는이들自身 或은同事務所小使 里洞所任을使用하야 一一戶別訪問을하야督促할것을督促 奬勵할것은奬勵 道路修繕에는壯丁을呼出케함이또한事實이아닌가? 그러나 그面의文化向上에 卽民衆의幸福을爲한일(可能性잇는限度內의)萬一에等閑視하야 그所謂天職的臨時라도) 使命을다하지안코面責任을다하지안코 그저遞然히面長 書記 協議員 區長의稱號만徒然히밧고만안젓다면엇더할가?

키일흔帆船
李益相 作　李靑田 畵
【91】

자리에 몸을 던지기는햇스나 잠이올ㄷ는 만무하엿다 방안에 놓어노흔모든물건까지라도 새로운뜻으로서 들려뵈엿다 잇는지 얼마아니되는방이지마는 자긔의한평생에는이즐수업슬듯하엿다 이방에서지나온몃날동안이야말로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한 순진한 꿈을배커왓섯다 그러나 그것도 벌서 꿈가운데의 꿈이라하엿다

닭우는소리가 멀리들리엇다 밧가튼 죽은드시 다시고요하여젓다 시계는 인경의 나갈시간을 재촉하는듯커커커커소리를 내인다 여러가지 공상에잠겨 애를태우다가 그는 잠이 어명풋하게들고말엇다

얼마지난뒤에 인경은 눈이번쩍 떠젓다 그는 시계를보앗다 벌서 네시가 갓가웟다

『세상에 잠가티 무정한것은업서 그래도 잠이 오다니…』하고 혼자 중얼거렷스나

그는 소리업시 일어나서옷을 고쳐입고 편지를 책상우에 노흔뒤에 가만히 문을열고 마루노 나왓다 창호의방은 던등불이 켜진그대로 잇섯다 방안에서 아무런한 소리가업든것이 아마 창호도잠이 깁히든 모양이엇다 인순이도 방문밧게는 첫봄 아침의 찬바람이 귀가에서 휘파람을불고 지쳐갓다 한울에는새벽별이 더욱밝아보엿다 새벽바람이 불어오는 공기가운데에서 조흔듯 향긋 내려다보이는 등불은 봄날새벽에 봉고 시쳐갓다 한울에는새벽별이 더욱밝아보엿다

그는 한참동안 마루에서 발을 내려드되며 신발을 차지신고 휘휘 마루에서 발을 내려드딀때에는 그의머리가 휙 내둘리엇다 그는손으로 기둥을 붓들고 한참동안이나 가만히 서서 정신을 차렷다 가만히 정신을 차린뒤에 그는 발자최소리업시 가만가만 걸어 대문을 열고 집밧그로 나섯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앗다 그러나 딸아오는사람업는것이 더욱섭섭하엿다 그가 수십보를 걸어나와 다시 돌아다보앗스나

그러나 역시문이 반음열린채 그때로 고요히잇슬뿐이오 내다보는사람은 아무도업섯다 그는길로 나오기는하엿스나 그들기리는곳은 하나도업섯다 한번나오고보니 그의잇슬곳은 커터도 다롤어젓다 그는 충충걸어 큰행길로나서 효자동 면차뎡류장까지 나왓다 길에는 사ㅣ의그림자는 하나도업섯다 북악산에서 내려질리는바람에 그의전신은 쌋늘하게식어버렷다 그의몸과마음은 서잇는거리에 한거번에 얼어부를듯하엿다 그는면차를 기달일가하엿다 그러나 면차가 다시걸엇다 녀다란하게 그는 궁정미뜨도걸어 광화문압까지 왓다 그다란상자에 구멍을뚤은듯한 총독부령사가 암흑가운대에 백귀(白鬼)처럼 웃둑히서잇다 그는다시 륙조압큰길을걸어 광화문종뎡류장까지 나왓다 그의다리는 어느듯피곤하엿다 시내면차는 벌서뚱행하엿다

그의갈곳은 경성역밧게는업섯다 더욱히수중에 잇는돈이라야 몃원이되지 못하엿다 그는 시골에서 도망해나오든일이 새삼스럽게 생각이낫다 그때에도 물론섭섭한 생각도잇섯다 그러나그것은 다른사람을 위하야섭섭이 아니엇다 울음버서나는 맹수와가튼 할놈한생각이 더욱만핫섯나 다만섭섭한것이란 자긔가 이생긴레에대한 섭섭이엇다 그러나 오늘의 그의마음은 『오아시스』를 바리기는 앗가움고 갈길을가야하겟다는 사막의 장사사람의마음과 가랏다 그의마음은 섭섭한것뿐이아니엇다 그러나 내노흔발길은 다시돌일수는 업섯다 그가 뎡거장에 도착한뒤한시간뒤에 그를실은 렬차는 새벽빗츨 등지고 황해안 黃海岸을향하고 다라낫다

오드라 八日放送 푸로그람

午前九時四十分午後〇時五分 定期放送

午後〇時十五分 『폭스트롯』數種 『데이도ㅣ』 中國曲數種 『스몰』管絃團

午後一時 講演 我等은如何히하여大聖의降誕을祝할가 淸成博朗

午後一時四十分同三時五十分 定期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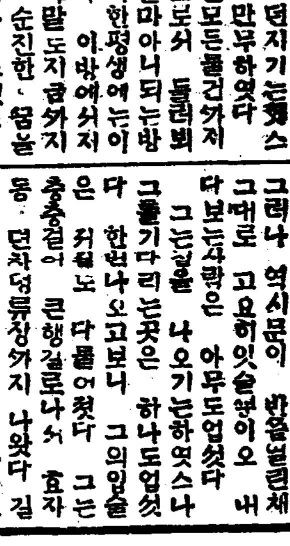
午後六時 童話劇白象의夢 京城ヌケミ會員

午後六時三十分 初等英語講座

午後七時 講演 釋尊의[illegible]

天氣豫報 晴後曇
◇最高 七日 正午 五七、二
◇最低 六日 午前 五六、三
◇日出 前六〇〇九　夜間 十二、五一〇九

大高評을밧는 內服用六〇六號
가래톳 橫痃、下疳을手術치안코治療함
종기 명우리와 瘰氣업서지며 頑固한梅毒에도神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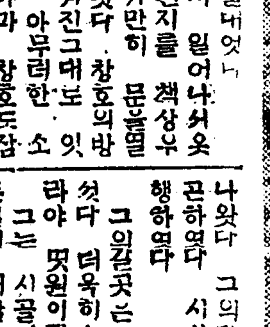


最近謝禮狀의一例
九月二十三日 昌城郡大楡洞 金○○

藥價 一號輕症用金五圓、二號重症用金拾圓、三號頑固用 金貳拾圓、試用分金貳圓、다만送金은振替或은小爲替代金引換도取扱함
●세ㅣ빈은一號二號三號의三種이有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通 電本一六六〇番 振替京城一四二五八番
朝鮮支店　東京支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附屬醫院 本支店內에附屬醫院의設備가有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治療를하오니患者는來店하시오

▼萬人必備의寶典! 中央法政學會編 最新刊
證文과契約의書法
◆本書一冊만잇스면 아모리어려운證文과契約書일지라도남에게속지안토록正書하게되오리다
◆金錢의貸借、物件의貸借、賣買、讓渡其他種種의證文과契約書의書法이잘못되면意外의損害를입거나回收치못할失敗를當하는일이만소◆本書는中央法政學會에서苦心研究한結果完成한寶典이라
◆金錢의貸借◆動産不動産의賃貸借、買와貸借◆土地建物의貸借及賣買◆物品의賣買◆土地小作契約◆營業上에關한諸契約◆其他日常百般모든證文과契約書의書法을一一히其書式과書例를示하야누구든지알기쉽도록丁寧親切히說明하엿는故로◆本書一冊만잇스면過多한費用을드려서專門家에게依賴하지아니할지라도틀림업는證文과契約書를自由로쓸수가잇고또附錄으로 願屆申請書式大全 을添付하야戶籍民事兵事土地建物營業、特許、登記事項等其外郡面所와모든官公署에提出하는書式을數百種에互하야一一히說明付로仔細히揭載한故로代書人에게依賴할必要도업시모든願屆와申請書를누구든지自由自在로쓸수잇는萬人必備의大寶典이라



▼四六判最新形金字入美本定價二圓인바 ▼發賣記念으로新聞名記入注文者千名限 特價金一圓五十錢
●前金注文送料不要 ●後金引換廿五錢增
東京市銀座西紺屋町六 振替東京二七三三七番 中央書院

本店群山府九福洞 主任 金洪斗 電話五三〇番 振替京城三一八七
海陸物産 委託販賣 外米雜穀 原鹽貿易 金錢貸付
群山天一商會 木川浦支店
支店益山郡裡里市外木川浦 主務 金容順 事務員 郭三根

ゲンカ 發毛劑 內服藥
겐가

毛髮의神 九州帝國大學敎授 旭博士創製
玄華의
名에依하야藥効 比類업슴

老若男女를不問하고 毛髮은美麗한데限함。
禿頭、脫毛、薄毛、無毛等毛髮의疾患治療及保護에『ゲンカ』의服用을奬함
겐가는……人毛中에含한有効成分을化學的集成을하려드되지안코抽出하야賦形藥을配合하야服用容易하게한것이다
錠劑粉末의二種이有
東京大阪デパート藥品部及全國知名藥店에잇소、萬一品切의時는本舖에御申込을乞함

毛髮衞生에關한百般의御質問에答함 小倉市日明 日明製藥所內 毛髮相談所 宛

本舖 小倉市日明 日明製藥所 電話八九番 振替下關四八九〇八二番
002490

昨年度의朝鮮 棉作實收高狀況

今年綿作實收高를調査하건대五月下旬부터七月上旬에亘하야旱水害의影響을受하야生育이稍히阻害된地方도잇섯스나八月以來에잇서서는天候順調로經過하기때문에生育이旺盛하얏다그리하야收穫期에入하야冷溫多濕이기때문에幾分成熟이遲延되어此로因하야每反收穫高를減한地方이잇섯스나大槪作況이良好함고로作付反別增加도因하야總收穫高는前年에比하야現著히增加되엇더라 即本年實棉收穫高는陸地一億一千八百二十六萬四千三百八十一萬九千七十斤在來棉四千三百八十一萬九千七百五斤合計一億六千二百八萬四千二百七十五斤으로此를前年收穫高에比하면陸地棉은一千七百三萬九千五百二十五斤(一割六分八厘)在來棉은百八十六萬三千二百八十九萬九千八百九十三斤(一割二分五厘)合計二千百八十九萬九千八百九十三斤(一割五分六厘)의增收를示하얏다左에收穫高累年表及本年道別收穫高를示하면左와如하더라

◇棉作付反別及收穫高累年表

年次	作付反別(町)	收穫高(斤)
大正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道別作付反別收穫高表

道別	作付反別(町)	收穫高(斤)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殘餘되어잇는 鑛業開業策槪觀
所有權面積十六億坪

總督府에서鑛業開業에對하야는今年度부터五萬八千三百二十九圓의臨檢費를計上하야實地調査를하기로되엇는바昭和元年十二月三十日現在의全鮮鑛業權의調査를하엿든바鑛區의所有는

	鑛區數	面積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外國人	[illegible]	[illegible]

으로△印은韓國政府時代에取得된것으로里町間으로서面積을登錄한것이다即此鑛區에對하야各道別은(△印同前)

鑛區		面積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合計二千九十鑛區의十五億二千七百五十二萬四千九百五十九坪과四十三鑛區의五十八里二十一町四十五間인바此所有權中係行中인者는아직적으며昨年中에輸移出된重要鑛은左와如하더라

金	五、八四六、一五四
銀	二、六〇五、四九五
金鑛及沙鑛	二、三四六、七六三
銅	五六六、五一六
鉛	六八三、五四一
[illegible]鑛	七七二、九四六
鐵鑛	五、三八四、八五三
亞鉛鑛	三八三、一四五
重石鑛	三、三五〇
黑鉛鑛	二五四、八四一
同土狀	五八三、六八七
石炭	一、三六〇、三一七
硅砂	二三九、〇八四
其他	一、三三六、五一八
計	二三、二六七、二一〇

으로十四年度보다도五百二十九萬二千二百七十圓의增加를示한것으로서銑鐵金石炭等은異常한出超이더라

繭絲資金 利率協定說

從來鮮內金融市場은金利低減하야最低率은거의不動으로의것이一般的이엇스나前年末頃부터一變하야最低率이現著히引下되기始作하야今年에는特히甚한것이잇다따라不遠間需要期에入할繭資金과如함은日本에따라關係銀行間에서協定率을定하면엇더할가하는意見이一部에잇다(一)朝鮮蠶絲家繭仲買는그信用程度가全혀區區하야標準이될것이엇다(二)더욱幼稚하야自由로發達식힐必要가잇다(三)보다去來銀行이一定하야잇는等協定實現難의事情도잇스나不遠間協定의機運에際會하리라고看做한다

朝鮮所用 中國麻布 往航은積荷殆無
恩田朝郵社長談

上海를中心으로하는中國動亂의結果上海航路도當然其影響을不免하나지금航路를中止하기外지에는일르지안엇스나目下朝鮮으로서는中國麻布의旺盛期에入하얏고上海에는그만큼의準備가잇서何時든지積載하게되엇슴으로復航은數日前上海出帆船에도相當한積荷가잇섯스나往航은그다지積荷가업섯다朝鮮으로는主로砂糖洋灰罐詰物果物類의輸出인바砂糖은關東大震災의結果大阪方面의對中輸出이東京方面에移向하얏기때문에朝鮮으로부터의對中輸出을보앗스나東京復興에依하야또도還元하야大阪方面으로부터對中輸出을보게되엇슴으로朝鮮으로는거의出치안는다其他商品도上海動亂勃發에件한金融의念慮하야거의出하지안케되엇다

朝鮮米의 前途移出餘力

朝鮮米는豊作인만큼移出餘力이例年보다增大하야客年十一月부터本年三月末外지의移出이三百八十萬三千十八石으로昨年同期에比하야四十八萬七千七百八十六石의增加를示하고外米의輸入은十七萬二千九百九十八石으로前年同期보다二萬九千九百七十六石의減退를示하엿는바此外米의輸入은비록減少하엿스나그러나約三萬石에不過함으로足히關係할것이업스며從하야減退된數字를差除한다할지라도日本供給力은結局四十四萬七千八百十石의增大임을想像할수잇다然而朝鮮米의日本移出을六百五十萬石으로假定하면아직도二百六七十萬石의移出餘力이잇슴을또한豫測할수잇슴으로今後移出如何에依하야種種의波紋을生할것이며從하야實勢를計劃하는數派의重要할바이라할것이다

日本은緩下
◇朝鮮內金融界에反映

朝鮮銀行의調査에依하면日本市場의短資步合은前年同期에比하야翌日物、無條件이四五厘緩下하고月越、十日物은大阪一厘東京三厘의低落이다이緩下는直時朝鮮內에反映하야鮮銀券의增發로化하야지금더욱一億圓갓갑게發行高를示現하고割引日步도甲銀은二三厘乙銀은三四厘低下하얏다最近鈴木整理는朝鮮內金融市場도若干神經過敏이되엇는바大勢도는그다지큰變化는업고夏枯期에向하면南方으로더욱高利의것中에는引下될것이잇다더구나今夏부터秋外지는土木關係의資金이相當히出하리라고豫想되더라

鈴木支店 去來高
=成行如何는 朝鮮에큰影響=

鈴木京城支店의活躍時代에는某特種去來와相俟하야相當한多額에達하야大年十三、四年頃에는年八百萬圓에達하얏고其後漸次消極的으로되엇스나그래도年額五百萬圓의去來는下치안헛다其去來範圍도各面에亘하얏스나今回本店의窮狀暴露에依하야支店廢止는되지안흘것이나業務의縮少는離免하리라고본다딸아從來鈴木支店과의去來者는自然鈴木同種類의營業을하고잇는三井物產等에轉하게될것임으로三井支店의事業이膨脹할은當然이다또最近開業한三菱商事도此等商品의需要者供給에는何等支障이업스나八百萬圓의去來가잇는만큼鈴木商店今後成行如何에依하야는去來關係者에對한影響도不免하는同時에朝鮮財界에는相當히重大한問題이라고觀測하더라

鈴木商店整理案=(東京電)

破綻에瀕한鈴木商店은今月中에債權者會를開하기로決定하야極秘裡에整理案의作製를急激이하고잇는데大體의減資斷行과事業分離가該案의大綱이라더라

米豆業話

▲東京、大阪、兵庫等市場聯合會에서는市場發展策으로(一)從來石의單位를俵로改良하件(二)臺灣米及關貨、西貢米도上場하자는提案이잇섯다나▲勿論此案이實現되는때에는市場緊張을可期할수잇슬것이다그러치마는經濟界大勢가好轉하기前에는結局一樣의狀態일뿐▲阪地의相場은於焉間八圓台를突破하엿다米의自體로보아서는今後四十五六圓台도無難하리라이지마는目下時期에잇서서는八圓台의高價를放任치아니할貌樣▲아무리凶作이라할지라도目前은軟貨期임으로買方은無謀買의方針을取하기難하고賣方은春間一落을企待하니果然風이냐?雨냐?

前日은暴騰하엿다가今日에至하기까지三百四五十丁의續騰을告하엿스나그러나過去一月以來에는一落을示하엿슴으로此時機에鑑하야本月中에도또한一轉反落을豫期할수잇다昨今의反撥은在米減少의直接材料에基因한바인바在米減退는本年中에依例히遭遇할好材라하겟스나出兵說이加味되엇슴을基因하야中國出兵說과如한外的材料는日本財界의擾亂과與하는同時에開接의關材로볼수잇스며또는一段暴騰의相場이現出한後임으로當分高價一巡의感이업지안타고云云

前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九節	[illegible]
十節	[illegible]

後場小高

	後場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各限保合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消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帳入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累計 一七七〇〇石 二三四三〇〇〇石

仁川期米 七日

止價比較表

	前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小戾

昨後場阪地三十七圓九十九錢止와共히三十四圓六十五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七圓九十五錢인又復續落을報하고三十四圓六十錢에場을始한後阪地九十一錢의報와相俟하야六十一錢外지低移하더니阪地九十七錢으로返戾한을보이어七十四錢外지跳返하엿다가結局阪止는九十八錢으로當地는七十二錢에場을止한바高低의差는十三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二十六丁이더라

當分高價一巡

前途洋洋한本年大勢에잇서서는如干低押이잇다할지라도結局은幾分發展의天井으로日寸進尺인의

大阪期米

	前場		後場	
	寄	止	寄	止
當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八圓〇四錢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市勢

同	(四)(甲)玄米三等	三二、一〇〇
	四等	三一、六〇〇
無檢査米		二九、〇〇〇
一等精白米		三五、三〇〇
在來正租		九六厘
改良正租		九七厘

株式

京取市場 七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illegible]	[illegible]	—	—
鐘新	[illegible]	—	—	—
大新	[illegible]	[illegible]	—	—
新東	[illegible]	—	[illegible]	—

前場續軟

京取 一〇低 大新一〇低
鐘新 一〇〇低 新東二六〇低

新東鐘新激落 軟氣尙未不息

今朝前場은亦是軟調不息하야新東이依然獨低하엿슴으로大新은九十圓十錢寄後反低하야八十九圓七十錢의低價가有하얏스나다시九十圓四十錢으로反戾大引하고鐘新은百二十五圓丁으로寄後三十錢으로戾返하얏다가五圓丁으로大引不成이엇고京取는二十四圓二十錢寄付와三十錢大引의寄引이오新東은一圓四十錢激落인百四十七圓五十錢의低價가有하고다시六圓丁으로反戾하얏스나大引不成이엇더라

東新戾價賣慕 大新押目買氣

今次低落市勢의震源地는東京인만큼東新에對하야人氣는依然不良하야東新이少許라도低押만하면賣慕함을보면對照的으로大新에此와反對로大新에對한人氣는比較的好感을與하며東京市場信用失墜의結果로自然人氣는大新으로向하야注文이殺倒하는傾向임으로大新은押目買氣가强烈한그만큼勝勢는延長되겟는데今朝當所는東新이繼落된百四十五圓五十錢의低價가잇섯스나大新은此와反對로押目買拾主義에多小反落하얏스나急激

鐘新低軟原因

綿業界의事情이不良하기때문에減配說이低播되엇슴으로買目標가된鐘紡은價位가低下되엇는데로採算의擡頭가잇는形勢인데今朝는百二十五圓으로低取保勢하얏슴을인바人氣亦稀薄하더라

京取依然

京取는今朝二十四圓三十錢의附步이엇는데京取로論하면業績不振이原因되고또한合倂問題가一次解決을告하게되가前에는現象일것이다

仁取新舊配權落

仁取短期取引新舊株는九日後場부터特別配當及權利落으로賣買한다더라

配當落諸株

東拓新舊株와東拓新舊株及朝鮮信託株는九日後場부터配當落이더라

大新東新逆日步

大新은買方受株에六百七十枚와株不足으로逆日步四十五錢이엇고東新은亦二百枚株不足으로五十八錢逆日步이엇다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新東	[illegible]	

後場暴落

京取 三〇低 大新一八〇低
鐘新三二〇低 新東四四〇低

又復低氣壓에 諸株一齊新低

後場은亦是新東先驅暴落으로諸株가大暴落을告하야總賣人氣로場面이化하얏슴으로大新은九十圓三十錢에寄後散漫萬丈中大暴落하야八十八圓六十錢으로大引되고東新亦百四十六圓八十錢反高寄러니依然低氣壓이殺倒하며一氣로一圓六十錢으로龜裂崩退하야大引되고鐘新은百二十三圓五十錢步로此亦百二十一圓六十錢의低價가有하고八十錢小戾大引이오京取는二十四圓十錢步로四圓丁에大引되고安取는八圓二十錢一步가잇섯더라

諸株龜裂 又復新低價

後場은新東이四圓以上의低落不勢도人氣는더욱嫌氣가生하야投物殺倒하며總賣人氣로及其百四十一圓歟로崩退하야新低價를示하고大新은또한八十八圓四五十錢으로低落하고鐘新亦百廿一圓六十錢의低價가有하얏는데이를그餘燼는아즉도終熄되지안흘것가튼데此로因하야買方에破綻이續出한다하면今後成行은注目되는바인데低氣壓은더욱險刻化되는것갓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新東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前寄	大引	後寄	大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長期合計 累計 五五〇〇
▲短期合計 累計 二二六七〇〇〇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前場久原	[illegible]
▲前場新東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後場久原	[illegible]
▲後場新東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一日(金曜)부터 超特別大興行
佛國파테社不朽의大傑作 佛國西部秀映畵投影第一位當選 佛國獨特의天然色名畵
케닉스마―크 全十四卷
巨匠레온스페레―氏大監督 女中傑싸―캇트―더그레―스·카도링氏主演 人氣焦點!
아!豫告의豫告를거듭하던 金剛山上서의 撮影이 엇어 나마 加 大 映 의 內容은 다 시 이 언 言 보 高 다 昇 加 이 當 하 웃 고 다
한 것은 言語 不 要
시 宣 傳 하 는 人 氣 沸 騰 에 된 엿
歐米스크린에 封切되다!
女名捕手 全七卷
紐育大興社特作品 最近流行新映畵!
監督은크라렌스뱃자―氏 天才的女優 라이온―스달리 無雙 엘렌·무어 孃主演
一幕一幕 一場面 一場面 대로 보시지 못할 것이 올시다
京城府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番

四月四日부터五日間 特別封切喜活劇週間
◆유社쭈엘超特作映畵 호드깁슨氏得意의映喜劇 깁슨의 명랑구리 全八卷
◆유社특유스터특作品 珍無類의痛快한喜劇 싸홈一手請負 全五卷
◆유社에드벤추어大衆連續劇 第四回 黃金의魔神 全四卷
◆유社獨特西部劇 正義를爲하야 全二卷
◆유社 國際時報 全一卷
◆順次封切될映畵
放浪詩 野鼠 全九卷
不朽의名作 愛의闇路 全九卷
忍從哀曲曲馬團의恋史 全十卷
大雄篇 아메리카 全十一卷
유社폭스 映畵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鏡付美術容器入
現代의貴婦人間에 盛大히歡迎을밧는
クラブ 클라부 白粉錠
언더한處所에서든지손쉽게 化粧을매만질수가잇고또속한化粧에가장適當합니다

優良第一의
カテイ 가테이石鹼
入浴에나化粧前의洗面에는品質優良의가테이비누를使用하시면決코살결을거칠게안이합니다

가루우유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母乳에代用 牛乳보다優越한
見本說明書進呈
母乳代用、保健榮養의 重任을 完決할唯一의榮養料라하면 卽이것!!!

標語 父親은라크도―이고 子息은健氣가되고
神戶 大阪 東京 ... 販賣 食料品株式會社